

국가장학금

지급 개편 사례

2013년도 000대학교에 재학 중인 △의 경우, 본인과 그 가구원의

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

(연간 소득인정액 4,112만원 이하)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

국가장학금(유형) 112.5만원을 지급받음.

그러나 ◇와 그 가구원의 경우 연간 금융재산(정기예금)이

1,000만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

6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90만원을 지급받아야함.

▶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건강보험료를

비탕으로 한 추정소득 활용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.

2015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

금융재산(부채 포함)을 포함한

보다 정확한 소득산정을 통하여

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대학생에게

지급되도록 개선되어

공정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.



$$2 \times 2 = 4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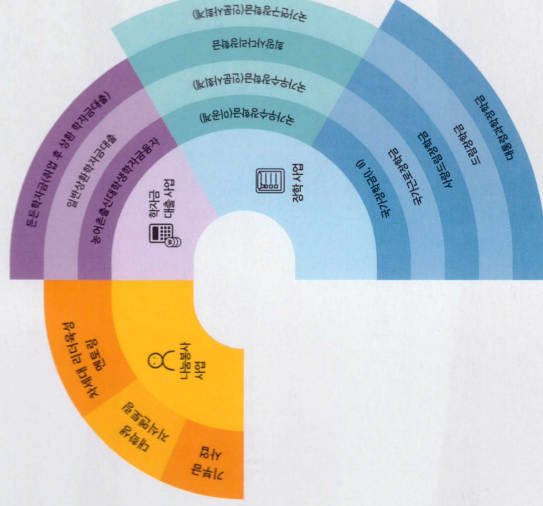
학자금지원 소득산정방식 변경 요약

구분	현행	개선
신청/동의	신청인 동의인	본인
	신청(동의) 온라인(재단) 신규(동의) 온라인 원칙	본인 부모 및 배우자 신규 온라인(재단) 기구원 동의 온라인 원칙
조사대상	본인, 부모 및 배우자	본인, 부모 및 배우자
조사항목	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정보	가구원의 소득·재산 (금융재산 포함)
조사방법	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연계	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와 금융재산(부채) 조사
통지	없음	E-mail 및 sms
이의신청	없음	이의신청 신설

그동안 일부 고액의 금융자산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던 사례가 사라지는 등 소득산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어,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.

한국장학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

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
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물론
인재육성을 위한 나눔과 봉사 사업을
실천하고 있습니다.



「비정상의 정상화」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
콜센터상담 1599-2000 www.kosaf.go.kr

영복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
달라지는 국가장학금!

이렇게 준비하세요!

| 2015년 소득산정방식 변경안내 |



한국장학재단